

# 열리지 않은 KIA의 지갑

### FA시장 외면...리빌딩 놓고 '고민'의 스토브리그

### 양현종, 日 진출 타진...차일목, 15일까지 재협상

조용하지만 고민 많은 KIA의 스토브리그다. KIA는 앞선 2년 FA계의 큰손으로 통하면서 스토브리그를 뜨겁게 달구었다. 한화와의 눈치싸움 속에 2012년 겨울 대어로 꼽힌 외야수 김주찬을 50억이라는 동권 배팅으로 잡아냈고, 지난 겨울 주전 중견수였던 이용규가 67억의 대박을 터트리며 한화로 떠나자 LG에서 외야수 이대형을 24억에 영입하면서 FA시장의 특별 고객이 됐다.

이번 겨울에는 KIA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 '집토끼' 투수 송은범과 포수 차일목이 외부 시장의 평가를 받겠다고 떠난 사이, 눈길을 줬던 좌완 장원준은 두산팬이 됐다. 사상 초유의 뜨거웠던 FA 바람이 지난 간 KIA의

스토브리그는 걸로 보기에 고요하다. 리빌딩이라는 지상 과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보상선수라는 손실까지 감당하면서까지 남은 FA시장에 발을 들여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송은범은 예상대로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송은범은 지난 2일 계약금 12억원, 연봉 4억5000만원과 옵션 총 4억원 등 4년간 총액 34억원에 한화와 FA계약을 끝냈다.

지난해 트레이드를 통해 KIA 선수가 됐던 송은범은 이번 FA로 옛 스승인 김성근 감독의 품에 안기게 됐다.

선발난에 시달리고 있는 KIA는 원소속구단과의 협상에서 송은범에게 나름대로 섭섭지 않을 배팅을 했

다. 하지만 송은범이 한화를 선택하면서 FA 금액 계산 대신 보상선수 계산을 하게 됐다.

포수 차일목은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3일 타구단과의 협상기간이 마무리되면서 2차 FA 시장이 마감됐다. 이렇다할 소득을 올리지 못한 차일목은 KIA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전망이다.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타구단과의 협상 기간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으면서 KIA 잔류에 무게가 실린다.

차일목의 대우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KIA는 7년 FA 선수가 된 양현종을 놓고도 속을 앓고 있다.

양현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포스팅 금액 탓에 미국 진출의 꿈을 보류하게 됐지만 일본 시장에 관심을 보이며 해외진출의 꿈을 접지 않은 상태다.

특별지명 선수로 주전 중견수 이대형을 내주며 한바탕 흥역을 치렀던 KIA는 차일목의 대우와 거취가 확정되지 않은 에이스를 놓고 또 다른 고민을 시작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포수 차일목



"사랑합니다"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이 3일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퀸스파크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성용, 핑크빛 2호골

### 3개월만에 QPR 상대 결승골...하트 세리머니 눈길

기성용(25)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2호골을 터뜨렸다.

기성용은 3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퀸스파크 레인저스(QPR)를 상대로 후반 33분 0-0의 균형을 깨뜨리는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 골은 그대로 결승골이 됐고, 스완지시티는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기성용은 지난 8월 16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시즌 개막전 이후 3개월여만에 시즌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는 '코리언 더비'로 치러졌다. 기성용과 윤석영(QPR)이 각각 14경기, 7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며 팀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기성용이 중원에서 공-수를 넘나드는 역

할을 맡아 두 선수는 간혹 볼 다름을 보였다.

후반 중반까지만 해도 승부는 측면 수비수인 윤석영의 판정승으로 끝나는 듯했다. 기성용이 결승골을 넣기 전까지 QPR이 슈팅 5개를 시도하는 동안 스완지시티는 최전방 공격수 윌프리드 보니를 앞세워 14차례 골문을 두드렸으나 득점하지 못했다.

특히 후반 23분에는 보니가 웨인 라우틀리지에게서 오른쪽 측면 패스를 받아 QPR 로버트 그린 골키퍼와 1대 1 상황을 맞았으나 선방에 막혔다.

견고하던 QPR의 수비벽은 기성용의 슈팅 한 번에 무너졌다. 기성용은 10분 뒤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공을 잡은 뒤 골 지역 근처까지 침투, 슈팅 각도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공은 반대편 골대를 맞은 뒤

골대 안쪽으로 향했다.

기세를 올린 스완지시티는 라우틀리지가 후반 38분 오른쪽 슈팅으로 추가 골을 터트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기성용은 경기를 마치고 구단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는 우리에게 의미가 무척 크고, 팀으로서 최고의 기량을 보였다"며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첫 골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멋진 일이다. 중요한 경기에서 홈 팬들 앞에서 골을 기록한 것은 완벽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전반전을 마치고 감독님이 더 침착하게 경기하라고 하셨다. 계속 인내심을 가졌기 때문에 후반에 팀이 두 골을 넣을 수 있었다"며 "지난 크리스마스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잘하고도 이기지 못해 실망했지만, 오늘은 개인적으로나 팀 모두 좋은 경기를 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 상대선수 견어찬 손흥민, 포칼컵 3경기 출전 정지

독일축구협회(DFB) 컵대회인 포칼 경기 중 상대 선수를 견어차 퇴장 당하고 거친 항의도 했던 손흥민(22·레버쿠젠)에 대해 DFB가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레버쿠젠은 3일(한국시간)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손흥민에 대한 포칼 3경기 출전정지 징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10월30일 마그데부르크에서 열린 FC 마그데부르크(4부리그)와의 2014-

2015 DFB 포칼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33분 볼 다름을 벌이다 넘어진 상대 선수를 발로 걷어차는 행동으로 퇴장당했다. 그는 퇴장 지시를 받고서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DFB는 이런 행동을 한 손흥민에게 지난달 초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징계에 따라 손흥민은 내년 3월 첫째 주에

정된 FC 카이저슬라우터른(2부리그)과의 3라운드(16강)에도 출전할 수 없다.

2라운드에서 레버쿠젠은 손흥민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인 가운데 마그데부르크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진땀승을 거두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바 있다.

레버쿠젠은 팀이 결승에 올라 손흥민이 이번 시즌 안에 다시 포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다' 가진 서건창

### 시즌 MVP·선수협 '올해의 선수상' 이어 조야계약 대상

사상 첫 한 시즌 200안타를 돌파하며 '신고 선수 신화'를 써내려간 넥센 히어로즈 서건창이 조야계약 프로야구대상의 최고 영예를 안았다. 초대 최동원상 수상자인 KIA 에이스 양현종은 최고투수상을 받았다.

서건창은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4 조야계약 프로야구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건창은 상금 1000만원과 순금 도금 클러브도 받았다.

올해 넥센의 불박이 1번 타자로 활약한 서건창은 128경기에서 타율 0.370(543타수 201안타)에 67타점, 135득점, 48도루를 기록했다.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한 시즌 200안타를 넘어서고, 역대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도 세웠다.

최고 투수상은 양현종(KIA), 최고타자상은 박병호(넥센)에게 돌아갔다. 신인상은 박민우(NC)의 품에 안겼다.

일본프로야구에서 활약한 오승환(한신)과 이대호(소프트뱅크)는 특별상을 받았다.

◇2014 조야계약 프로야구 대상 수상자  
 ▲대상 : 서건창(넥센) ▲최고투수상 = 양현종(KIA) ▲최고타자상 = 박병호(넥센) ▲최고구원투수상 = 안지민(삼성) ▲최고수비상 = 김성수(삼성) ▲프로 감독상 = 류중일(삼성) ▲프로 코치상 = 최일언(NC) ▲신인상 = 박민우(NC) ▲공로상 = 김인식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장 ▲기량발전상 = 이재원(SK)·민병현(두산) ▲재기상 = 이승엽(삼성) ▲특별상 = 오승환(한신) 이대호(소프트뱅크) ▲프린트상 = 한화 프린트 ▲심판상 = 이영재(KBO) ▲아마 MVP상 = 엄상백(덕수고) ▲아마 지도자상 = 박종욱(리틀 야구대표팀 감독) ▲조야비트상 = 손승락(넥센)·이병규(LG·등번호 7) /연합뉴스

